지식경제부	보도자료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2년 5월 1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최진혁 SW융합과장(02-2110-5151), 김동환 사무관(5154)		

대중소 IT융합 협력으로 "Smart Ship 2.0" 구현, 조선산업 세계 1위 수성

-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조선IT융합 혁신센터 개소식 개최 -

□ 지식경제부는 4.30(월)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홍석우 장관, 이재성 현대중공업 사장, 박맹우 울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, **「조선 IT융합 혁신센터 개소식」**을 개최함

○ 이번 조선IT융합 혁신센터는 그간 IT융합 동반성장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해온 **「IT융합 혁신센터」**를 기존 차량, 섬유, 건설 등 3개 분야에서 **조선분야까지 확대**한 것으로,

< IT융합 혁신센터 현황>

◈ 센터 개요 : 주력산업 분야 대기업("센터") 주도로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IT융합 기술을 중소 IT기업이 개발하고, 개발된 우수 IT 기술은 대기업 생산 제품·서비스에 적용함으로써 수요 창출

◈ 운영 현황 : 차량(현대기아차), 섬유(코오롱글로텍), 건설(삼성물산), 조선(현대중공업)

* 센터별 연간 20억원씩 정부 예산 지원

○ 특히, 이번 「조선IT융합 혁신센터」에는 현대중공업 이외에도 대우조선해양, 한국선급, 조선협회, 울산中企지원센터, 울산·경남테크노파크 등 **조선관련 대다수 업체, 관련협회·단체, 유관기관 등이 참여**함으로써 **조선IT융합 생태계 조성에 기여**할 것으로 기대됨

□ 「조선IT융합 혁신센터」는 고유가, 환경규제 강화, e-Navigation* 도입 의무화 등 조선환경 변화에 대응하여, **'친환경', '안전', '생산성' 등 3대 분야**를 IT융합 중점협력 분야로 선정하고,

* e-Navigation : 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해 조류·암초 등 해상정보를 수집, 통합, 분석하는 시스템으로서 국제해사기구에서 '13년부터 도입 의무화 예정

○ 향후, 상기 분야를 중심으로 조선社가 필요로 하는 IT융합 과제를 기획, 5월중에 공모를 진행하고, 6월 이후 개발 중소 IT기업을 선정하여 공동 기술개발에 착수할 계획임

< 3대 중점 협력 분야>

◈ **(친환경)** 연비절감지원시스템 등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운항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

◈ **(안 전)** e-Navigation 안전운항시스템 등 안전한 항해를 지원하고, 선박 충돌 사고 등을 예방하는 기술

◈ **(생산성)** 선박 건조에 필요한 설계, 생산, 물류, 유지보수 프로세스 등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기술

□ 수요 대기업과 IT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동 센터사업 본격 추진으로,

○ 선박 기기간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 등 기존의 IT융합 인프라 구축 및 모니터링 수준을 넘어, **앞으로는** 연비·배출가스 등을 고려해 **선박의 최적 운행상태를 자동으로 유지**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쉽 **("Smart Ship 2.0")** 구현이 가능해 질 것이며,

○ 스마트쉽 구현에 따른 제품 차별화 및 고부가가치화로, 중국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고 조선산업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< Smart Ship 1.0과 2.0 비교 >

구 분	Smart Ship 1.0	Smart Ship 2.0
개 념	· 선박내 통합 통신 인프라 구축 · 선박정보 단순 모니터링	· 통신 인프라 활용 실제 서비스 개발 · 선박정보 분석 및 의사결정 지원
배 경	· 선주의 운행 정보 요구, 유지보수 비용 절감 대응	· 고유가, 환경규제강화, e-Navi 규제('13년) 등 환경변화 대응
사 례	· 원격 유지·보수 시스템 - 선박내 기기(엔진 등) 원격 감시·분석 ⇨ 수리·점검 비용 감소	· 녹색선박운항 시스템 - 선박내외 정보(연비, 배출가스 등) 분석 ⇨ 최적의 운항패턴 유도
협 력	· 통합 통신망 표준화 필요 ⇨ 연구기관(ETRI)의 역할 중요	· 다양한 서비스 발굴이 핵심 ⇨ 조선IT 전문기업 역할 중요

□ 한편, 개소식 이후 **홍장관은 현대중공업 엔진 및 선박 제조현장을 방문**하여,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였으며,

○ 특히, 현대중공업이 전자통신연구원(ETRI)와 함께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**110척 선박 수출**효과를 가져온 **유무선 선박 통합네트워크(SAN: Ship Area Network)**기술*이 적용된 선박에 승선하여, 조선IT융합 현장을 직접 체험함

* 선박내 모든 장치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함으로써, 장치들의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통합 통신 인프라 기술

별첨 1 개소식 개요

□ 일 시 : '12. 4. 30(월) 16:30 - 17:30

□ 장 소 : 현대중공업 본관

□ 참 석(40여명)

○ 정 부(10) : 지경부 장관, 울산 시장 등

○ 기 관(10) : NIPA, 울산TP, 경남TP, 울산중기지원센터 등

○ 학 계(5) : 울산대 총장, 울산과기대 총장

○ 기 업(15) : 현대중공업 사장, 부사장, 대우조선해양 이사

□ 진 행

	시 간	내 용	비고
센터 개소식 (40')	16:00 - 16:05	현판 제막	· 현판 제막 및 기념 촬영
	16:05 - 16:10	사전 환담	
	16:10 - 16:15	개회·국민의례	· 사회자
	16:15 - 16:20	환영사	· 현대중공업 사장
	16:20 - 16:25	축사 I	· 지경부 장관
	16:25 - 16:30	축사 II	· 울산 시장
	16:30 - 16:40	센터 계획 보고	· 현대중공업 상무
현장 투어 (50')	16:40 - 17:00	야드 투어	· 야드 순환버스 탑승
	17:00 - 17:30	승선 체험	· SAN 장착 선박 탑승

별첨 2 주요 참석자

구 분	소 속	직 위	성 명
정부	지식경제부	장관	홍석우
	지식경제부 정보통신정책관	국장	박일준
	울산광역시	시장	박맹우
기관	정보통신산업진흥원	원장	정경원
	한국선급	회장	오공균
	울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	본부장	김정도
	울산테크노파크	원장	신동식
	경남테크노파크 IT융합사업단	단장	정기식
학계	울산대학교	총장	이 철
	울산과학기술대학교(UNIST)	총장	조무제
기업	현대중공업	사장	이재성
	현대중공업	부사장	황시영
	현대중공업	부사장	김외현
	현대중공업	상무	조성우
	현대중공업	상무	임정석
	대우조선해양	이사	서홍원

별첨 3 SAN(선박 통합관리 네트워크 통신기술)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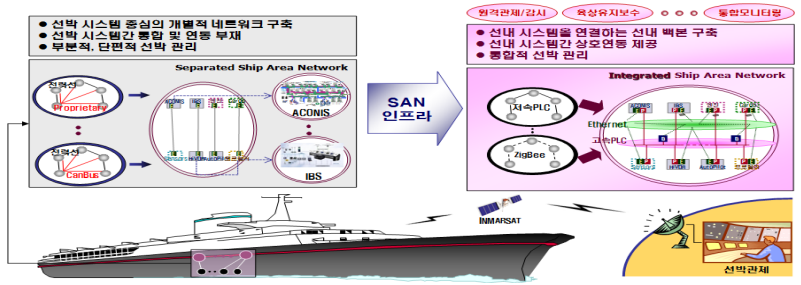
□ 기술 개요

○ 선박내 모든 장치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함으로써, 장치들을 실시간으로 원격 모니터링 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 기술

- 선박 장치들을 육상에서 감시가능 ⇨ SW오류 등을 원격으로 모니터링

* (기술개발전) 헬기 등을 통해 선박에 전문가를 직접 파견 ⇨
(기술개발후) 원격유지보수가 가능하며, 건당 3,000달러의 파견 비용 절감 가능

< 선박통신기술(SAN) 기반의 스마트 선박 기술 개념도 >



□ 주요 성과

○ **(정량적 효과)** SAN 탑재 선박 110척 선적 수주

- 덴마크, 그리스 등 8개국에 현대중공업, 대우조선해양 등이 SAN 구축 선박 110척 수주('12.1월 기준), 120억원 수출 창출

○ **(정성적 효과)** 지능형 스마트 선박의 가능성 제시

- 원격유지보수, 메신저 등 다양한 선박 서비스의 가능성 제시

- 국제 표준 채택을 통해 국내 IT조선 융합기술을 세계적으로 홍보